

## 『醫方類聚』에 인용된 『理傷續斷方』의 서지연구

김영곤<sup>1</sup>, 김남일<sup>1</sup>, 안상우<sup>2\*</sup>

1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2 :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정보부

### Study of Ancient traditional medical text Lisangsokdanbang through the Uibangyuchwi

Kim Young Gon<sup>1</sup>, Kim Nam Il<sup>1</sup>, Ahn Sang Woo<sup>2\*</sup>

1 :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2 :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Lisangsokdanbang is the oldest known medical document in existence. It is, however lost—its original copy could not be traced. But the contents of Lisangsokdanbang quoted in Uibangyuchwi, a document published in Chosun in 1447. Thus this study aims to restore the contents of Lisangsokdanbang based on Uibangyuchwi and present the synthesis of facts on Lisangsokdanbang extracted from the reference books.

Key Words : traditional korean medicine, Lisangsokdanbang, Uibangyuchwi

### I. 서론

『醫方類聚折傷門』에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친 것, 칼 등의 날카로운 것에 상한 것, 복부에 손상을 받아 내장이 나온 것, 골절이 생긴 것, 뺨 것 등 현대에서는 창상<sup>1)</sup>, 골절, 염좌라고 부르는 외상<sup>2)</sup>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외상에 대한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醫方類聚』는 ‘折傷’, 『鄉藥集成方』은 ‘諸損傷’, 『醫林撮要』는 ‘傷損’, 『東醫寶鑑』은 ‘諸傷’, 그리고 최근 김기욱 등이 저술한 『강좌 중국의학사』에는 ‘傷科’<sup>3)</sup>이라고 명칭하고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조선전기의 外傷에 대해서 『醫方類聚』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용어의 통일성과 편

의성을 위해 『醫方類聚』의 편제에 따라 ‘折傷’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折傷은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끊임없이 발생해온 질환이며 그에 대한 진단과 치료도 유구히 전해져왔다. 위에서 보듯이 조선 전·중기 종합의서인 『鄉藥集成方』, 『醫方類聚』, 『東醫寶鑑』에도 절상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이 존재한다. 물론 이 뿐만 아니라 『千金方』이나 『和劑局方』같은 唐宋代의 대표적인 서적에도 절상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여 현재 절상에 대한 치료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절상에 관한 한의학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조선전기의 折傷醫學에 대한 연구를 위해 『醫方類聚』를 살펴본 중, 최초의 절상 전문서적으로 알려진 『理傷續斷方』이 「折傷門」의 인용서목에 속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理傷續斷方』은 『醫方類聚折傷門』인용서 중 유일하게 절상에 관한 전문 서적으로 현재는 망실되어 본래의 형태가 존재하지 않고 단지 중국에서 현존판본을 모아 발행한 교점본이 몇 가지 있을 뿐이다<sup>4)</sup>. 이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서문으로 보아 당나라

\* 교신저자 : 안상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정보부 042-868-9442  
E-mail : [answer@kiom.re.kr](mailto:answer@kiom.re.kr)

1) 사전적으로는 상처의 의미를 지니며 切創·刺創·割創·挫創·裂創·射創·咬創으로 나뉜다.  
2) 여기서 말하는 ‘외상’은 외부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신체의 국부적 손상을 말한다. 하지만 韓醫學에서 병인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內外傷과 혼동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구에 사용하는 데는 부적절한 용어이다.  
3) 김기욱 외, 『강좌중국의학사』, 대성의학사, 2006, p.138

4) 현재 연구하고 있는 중국판 교점본은 모두 3가지인데 다음과 같다.

때인 841~846년에 藺道人에 의해 저술된 것으로 판단되며, 본문은 「醫治整理補接次第口訣」과 「又治傷損方論」의 두篇으로 나누어져있어 각篇의 초두에는 醫論을 밝히고 뒤에 治方을 붙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韋以宗등이 『理傷續斷方』 대해 서문이나 본문의 진위여부, 저자인 藺道人의 행적 및 학술사상에 대한 연구<sup>5)</sup>를 해놓았다. 縣志, 史書 등을 참고하고 현장답사를 통하여 서문에 등장하는 인물과 지명에 관한 고찰을 하였는데, 내용에 의문점이 많다. 특히 간행시대를 설정하는 부분에서 韋 등은 서문에서 나오듯이 唐代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醫方類聚』에서는 『理傷續斷方』을明代간행된 서적들 사이에 인용하고 있어 의문점을 주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판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醫方類聚』를 참고하지 않아 내용을 온전히 밝히는 데에는 오류가 컸다. 『醫方類聚』는 편찬 시 여러 종의 우수한 판본을 수집하여 취사선택함으로써 인용서의 원문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채록하고, 내용 편집 과정에서 발췌 및 삭제, 해당 내용의 대조를 통한 교감과 추록, 주석 등 엄정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판본을 고증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sup>6)</sup>

이런 정확성에 의한 필요성 이외에 『醫方類聚』에는 타 판본과 비교하여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다.明代에 간행된 대부분의 판본에는 절상에 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는데, 『醫方類聚』에는 절상뿐만 아니라 疔瘡과 痔漏에 관한 醫論과 治方도 『理傷續斷方』이라는 제목아래 서술되어있다.

위와 같이 간행연대나 본문 내용상 『醫方類聚』는 선행연구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醫方類聚』에 인용된 『理傷續斷方』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醫方類聚』를 중심으로 타 판본을 비교 고찰하여 『理傷續斷方』의 실제 모습과 형성연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본론

### 1. 『理傷續斷方』관련 서적과 현존 판본

宋代의 『蘇沈良方』의 내용 중 ‘神授散’이 등장하는데 『理傷續斷方』의 接骨散과 일맥상통한다. 그 후 중국 元代에 李迺季와 李仲南이 저술한 『永類鈴方』에 ‘彭氏口教’ 혹은 ‘彭氏方’이라는 출전을 통해 제시되는 내용이 『理傷續斷方』본문과 흡사하다<sup>7)</sup>.

明代의 외과의사 趙宜眞이 외과방서를 널리 수집하였는데, 1395년에 인쇄가 謝安達이 趙宜眞이 수집한 방서 중 『仙傳外科集驗方』, 『秘傳外科方』 2권과 『理傷續斷方』을 함께 엮어서 출판하였다<sup>8)</sup>. 또한 1446~1449년 사이에 간행된 『正統道藏』에 실려 있는데, 『急救仙方』<sup>9)</sup> 11권 중 6~7권에 “仙授理傷續斷秘方”이라는 제목으로 수록했다. 또 다른明代판본으로 1483~1505년 사이에 崇德堂이 간행한 『靑囊雜纂』본이 있다<sup>10)</sup>.

국내의서 중에는 『醫方類聚』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折傷門」, 「疔瘡門」, 「痔漏門」, 「婦人門」의 네 가지 門에 등장한다. 이중 「折傷門」에 나오는 『理傷續斷方』관련 내용을 세 가지 중국교점본과 비교해보면, 「醫治整理補接次第口訣」의 경우 『醫方類聚』에서는 6개의 조문과 9개의 처방이 빠져있으며, 「又治傷損方論」의 경우 2개의 처방이 빠져있다. 그리고 「又治傷損方論」에서 빠진 2개의 처방 중 「膠艾湯」은 「婦人門」에 인용되고 있다<sup>11)</sup>. 특이한 것은 「疔瘡門」, 「痔漏門」인데, 여기에 나오는 인용부분은 위의 어떤 판본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내용이 正統道藏本 『急救仙方』에 그대로 들어있다. 「疔瘡門」은 『急救仙方』 8권 「疔瘡治法」에 온전히 포함되고, 「痔漏門」은 『急救仙方』 9권 「秘傳五痔品」에 온전히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洪武本에 『理傷續斷方』과 합본되어있는 『秘傳外科方』에도 疔瘡과 痔漏에 관한 내용이 모두 동일하게 실려있다. 이와 관련된 고찰은 아래에서 자세히 하도록 하겠다.

이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唐·藺道人 撰, 韋以宗 點校, 理傷續斷方點校, 廣西民族出版社, 1989  
 ② 唐·藺道人 著, 宋書功 點校, 仙授理傷續斷秘方,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02  
 ③ 唐·藺道人 著, 胡曉峰 整理, 仙授理傷續斷秘方, 人民衛生出版社, 2006  
 위 세 서적에 사용된 판본은 본 논문에서 거론한 판본을 벗어나지 않지만 모두 『醫方類聚』는 제외하고 있다. 또한 저본으로 사용한 판본에 따라서 글자단위의 들고남이 있지만 본문내용은 기본적으로大同小異하다.  
 5) 唐·藺道人 撰, 韋以宗 點校, 理傷續斷方點校, 廣西民族出版社, 1989  
 6)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p.62.

7) 唐·藺道人 撰, 韋以宗 點校, 理傷續斷方點校, 廣西民族出版社, 1989, 證교설명, p.1  
 8) 상계서 p.56. 이후 洪武本으로 간칭하겠다.  
 9) 『急救仙方』은 현재 四庫全書本과 正統道藏本의 두 가지 판본이 존재한다. 이중 『理傷續斷方』이 속한 판본은 正統道藏本이다.  
 10) 상계서 p.56  
 11) 빠진 부분은 『醫方類聚折傷門』에서 주로 『永類鈴方』 아래에 정리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서 다루겠다.

[표1] 『理傷續斷方』의 관련 서적과 현존 판본

	시대	서명	설명
관련 서적	元	『永類鈴方』	‘彭氏口教’ 혹은 ‘彭氏方’으로 인용. 누락된 내용이 다수 있으며 서문이 없음.
	1445 (초간본)	『醫方類聚』	「折傷門」, 「疔瘡門」, 「痔漏門」, 「婦人門」의 네 가지 門에 등장. 「疔瘡門」, 「痔漏門」의 내용은 현재 출간된 중국교점본에는 없는 내용으로 『急救仙方』과 『秘傳外科方』에 포함됨.
현존 판본	1395	洪武本	趙宜眞이 수집한 방서 중 『仙傳外科集驗方』, 『秘傳外科方』 2권과 『理傷續斷方』을 인쇄가 謝安達이 함께 엮어서 출판.
	1446 ~ 1449	『正統道藏』	『急救仙方』 11권 중 6-7권에 “仙授理傷續斷秘方”이라는 제목으로 실려있음.
	1483 ~ 1505	『靑囊雜纂』	崇德堂이 간행한 『靑囊雜纂』에 실려있음.

1) 『醫方類聚』 각 門에 인용된 『理傷續斷方』의 내용분포

『醫方類聚折傷門』에는 세 가지 중국교점본과 비교해봤을 때 「醫治整理補接次第口訣」의 경우 6개의 조문과 9개의 처방이 빠져있으며, 「又治傷損方論」의 경우 2개의 처방이 빠져있다. 하지만 「醫治整理補接次第口訣제구결」에서 빠진 내용은 “勻氣散”과 관련된 내용<sup>12)</sup>을 제외하고는 모두 『永類鈴方』 아래에 인용되어있다.

일부 글자가 다른 것이 보이지만 내용상의 차이는 거의 없다. 『永類鈴方』에서 인용되었지만 내용이 많이 다른 것은 『理傷續斷方』에도 인용하여 정확성을 더욱 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표2] 『永類鈴方』과 『理傷續斷方』에 동시에 인용된 처방비교

	『永類鈴方』인용내용	『理傷續斷方』인용내용
처방	小紅圓	小紅圓
증치	治諸傷勞損, 跌折筋骨, 風濕攣拳, 壯筋骨·活經絡·生氣血.	내용없음
본초	川烏, 何首烏, 蒼朮, 蛇床子, 五靈脂, 白膠香, 赤小豆, 牛膝, 當歸, 各制淨壹兩, 乳香二錢.	烏頭一箇, 何首烏, 蒼朮, 蛇床子, 五靈脂, 牛膝, 赤小豆, 白膠香, 當歸, 各一兩, 乳香二錢.
복약	右酒糊元菘豆大, 每三五十元, 酒下.	右爲末, 好酒煮糊爲丸, 如菘豆大, 每服三十丸, 溫酒下.

12) 唐蘭道人 撰, 韋以宗 点校, 理傷續斷方點校, 廣西民族出版社, 1989, “勻氣散: 凡傷重, 先下此藥調氣, 然後服損藥. 茴香, 靑皮, 厚朴製, 白芷, 烏藥, 杏仁去皮尖 各半兩, 陳皮, 麥藥, 前胡, 桔梗, 蒼朮, 粉草 各一兩”

「又治傷損方論」에서 빠진 2개의 처방은紫金散과膠艾湯인데,紫金散은「折傷門」에서『得效方』아래에 인용되어 있고,膠艾湯은「婦人門」에『理傷續斷方』으로 인용되고 있다.膠艾湯의 경우는 중국교점본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는 반면,紫金散의 경우는大紫金皮散이라고 인용되며 내용도 많이 다르다. 하지만 말미에『外科集驗方』을 언급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중국교점본의紫金散과 동일하다<sup>14)</sup>.『醫方類聚』에 인용된『理傷續斷方』에서 중국교점본과 비교해 빠진 부분은 누락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모두 인용되어 있다. “諸方, 以世代先後, 分門編入, 不分細目.”<sup>15)</sup>이라는『醫方類聚』의 인용원칙에 따라 부인과 내용은「婦人門」에 인용하고 같은 내용이면 선대의서인『永類鈴方』이나『得效方』에 실려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는 큰 모순이 있다.『永類鈴方』이나『得效方』은 모두 元대의서이기 때문에 唐代的서인『理傷續斷方』이 시대가 더 앞서기 때문이다.

시대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 전문성을 따져서 더 비중이 높게 제시된 의서에 내용을 실어준다는 의미에서 보아도『永類鈴方』과『得效方』은 종합의서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면『理傷續斷方』아래에 실어주는 것이 맞다. 이런 문제는「疔瘡門」과「痔漏門」에 인용된『理傷續斷方』을 보면 더욱 복잡해지는데 뒤에서 함께 논하도록 하겠다.

『醫方類聚·痔漏門』<sup>16)</sup>에 인용된『理傷續斷方』내용은「李防禦五痔方」이라는 소제목으로 인용되는데,『秘傳外科方』<sup>17)</sup>의「李防禦五痔方」과 내용과 동일하다.『急救仙方』9권·「秘傳五痔品」도 소제목은 다르지만 동일한 내용이다.

『醫方類聚·疔瘡門』<sup>18)</sup>에 인용된『理傷續斷方』 내용

은 처방으로만 구성되어있고 중간에「李世安治療法」이라는 소제목이 들어가 있다. 이 내용은『急救仙方』8권·「疔瘡治法」,「李世安治療法」과『秘傳外科方』의「疔瘡治法」,「李世安治療法」의 처방부분에 해당하며, 의론<sup>19)</sup>은 기재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의론이『醫方類聚』178권,「疔瘡門」의『外科集驗方』인용부분에「疔瘡治法」이라는 소제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醫方類聚』의 인용문과 『急救仙方』 및 『秘傳外科方』 내용 비교<sup>13)</sup>

	「疔瘡治法」 의론	「疔瘡治法」 처방	「李世安治療法」	「李防禦五痔方」
急救仙方	○	○	○	『急救仙方』卷9 「秘傳五痔品」
秘傳外科方	○	○	○	○
醫方類聚	卷178 「疔瘡門」 『外科集驗方』 「疔瘡治法」	卷179 「疔瘡門」 『理傷續斷方』 소제목 없음	卷179 「疔瘡門」 『理傷續斷方』 「李世安治療法」	卷184 「痔漏門」 『理傷續斷方』 「李防禦五痔方」

## 2) 『理傷續斷方』의 편제 및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

『理傷續斷方』의 편제에 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창 및 치루의『理傷續斷方』 포함여부이다. 우선『醫方類聚』는 위에서 서술한대로『理傷續斷方』에 정창 및 치루의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편제를 보

13) ○표시는 소제목이나 내용의 차이 없이 동일하다는 의미이다.『醫方類聚』는 인용서명과 소제목을 모두 표시했다.

14) 『醫方類聚』의大紫金皮散과 관련된 본문은 다음과 같다.  
大紫金皮散：治打撲傷折, 內損肺肝, 嘔血不止, 或瘀血停積於內, 心腹脹悶. 紫金藤世醫得效方作“藤”. 皮 醫方大成二兩降真香續斷 補骨脂 無名異 燒紅, 酒淬七次琥珀別研蒲黃牛膝酒浸一夕當歸洗, 焙杏仁去皮, 炒. 各壹兩大黃紙裏煨朴消別研. 各壹兩半.

右爲末, 每服二錢, 濃煎蘇木·當歸, 酒調, 并進三服, 袖珍方二服. 利即安. 醫方集成·南北經驗方同.

外科集驗方整骨續筋, 生肌止痛, 內傷肝肺, 嘔血不止, 或在心腹脹痛, 四肢無力, 左右半身風痲, 並宜服之. 紫金藤皮二兩降真二兩續斷五兩, 要細者骨碎補二兩, 去毛 無名異 三兩, 燒紅, 酒淬七次 琥珀 二兩牛膝三兩, 去苗, 酒浸壹宿當歸二兩, 去尾杏仁二兩, 去皮蒲黃壹兩大黃壹兩, 煨朴硝半兩, 熱湯泡化, 用花葉紙濾過七次右件爲末, 用蘇木煎酒調, 日進三服即效.

15) 『醫方類聚』·凡例

16) 『醫方類聚』卷184, 「痔漏門 三」에 해당.

17) 明·趙宜眞 輯, 韋以宗 點校, 秘傳外科方, 人民衛生出版社, 1991. 이 책을 참고하였다.

18) 『醫方類聚』卷179, 「疔瘡門 二」에 해당.

19) 의론의 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中國醫學大成續集十四, 急救仙方 卷8,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夫疔瘡之初生也, 人多不覺. 生於頭面手足肚脅腰腿間, 亦無定處, 一二日必作寒熱如癩, 頭疼體痛不可忍, 其痛稍異於尋常之證, 須去徧身尋認其瘡, 如有小瘡與常患之瘡稍異, 即是疔也. 此瘡得患, 各有所因, 而其形狀亦各不同.

猪疔形圓而小, 瘡口內有油○. 羊疔形長色白○. 牛疔形圓而小, 瘡口內無油○ 狗疔形長或帶尖, 色赤○. 驢 馬疔其狀三角, 頂上有黑點, 根赤. △或○. 要知此瘡, 非特猪·牛·狗·羊·驢·馬之毒所致. 宿水不潔, 飲之亦生水疔, 豆腐中有人汗, 食之亦生豆腐疔. 又有氣疔, 鬼疔, 形狀雖不一, 然其治之之法則一也.

瘡色緩：第一日瘡頂色小白, 第二日色大白, 第三日色微紫, 第四日色眞紫. 瘡色急：第五日色微青, 小緊. 第六日色深青, 大緊. 第七日色黑. 其狀有如魚鱗, 又如灸瘡之狀, 乃最緊急之候也.

瘡證吉, 有應. 如生一丁之外, 別處肉上再生一小瘡, 卽是有應, 可用針挑破, 護場. 瘡四圍有赤腫, 生多, 瘡多者謂之滿天星, 飲食如常, 頭痛, 身熱, 手足溫.

瘡證凶, 無應. 別處肉上無瘡, 不護場, 疔四圍無赤腫, 內疔盛, 渴欲飲水, 飲食不進, 頭眩眼花, 護床不動, 臥不起也, 眼白, 睛癢不轉, 唇舌青, 腹痛. 甚者有內疔, 五心腫, 手足冷, 氣粗, 無脈.”

이는 것이 바로 正統道藏본이다. 正統道藏本 『急救仙方』에 『理傷續斷方』이 실려 있는 형태를 보면 「疔瘡治法」과 「秘傳五痔品」이 『理傷續斷方』에 속한 것처럼 보인다. 『急救仙方』6권부터 『理傷續斷方』이 실려 있는데, 처음에 서문을 두고 다음에 ‘醫治整理補接次第口訣’의 제목을 둔 후 내용을 적기 시작한다. 그리고 7권에서는 ‘又治傷損方論’을 제목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8권에서 별도의 書名없이 ‘疔瘡治法’을 제목으로 내세우고 내용을 적고 있다. ‘疔瘡治法’이 별도의 서명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醫治整理補接次第口訣’이나 ‘疔瘡治法’은 모두 들여쓰기를 하지만 ‘理傷續斷方’은 들여쓰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9권도 마찬가지로 소제목처럼 들여쓰기를 하여 ‘秘傳五痔品’이라고 적고 내용을 적고 있다. 즉 구성상 ‘理傷續斷方’아래에 네 개의 소제목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sup>20)</sup>. 이해를 돕기 위해 말미에 正統道藏本 『急救仙方』6~9권의 첫 장을 사진으로 첨부하겠다.

이와 편제를 달리 하고 있는 판본이 홍무본인데, 이 홍무본이 완전한 판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醫方類聚』에서 「疔瘡治法」의 의론을 『外科集驗方』아래 두고 처방을 『理傷續斷方』아래 두었다는 사실은 「疔瘡治法」의 내용이 모두 『外科集驗方』에 포함되어있지만 그 중 처방부분은 『理傷續斷方』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서술했거나 좀 더 내용이 풍부하여 이쪽에 실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sup>22)</sup> 하지만 1991년에 홍무본을 저본으로 하여 正統道藏본을 이용해 교정하여 출간한 중국 교점본 『仙傳外科集驗方』<sup>23)</sup>에는 「疔瘡治法」의 의론이나 처방 어느 내용도 포함되어있지 않다. 반면에 『秘傳外科方』에 그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있어 『醫方類聚』의 편제와 매우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sup>24)</sup>. 게다가 正統道藏본을 보면, 『急救仙方』다음에

‘仙傳外科集驗方序’라고 하여 서술을 시작하지만 본문에 가서는 ‘仙傳外科秘方卷之一<sup>25)</sup>’이라고 적고 있으며 중간에 9권에 가서 다시 ‘仙傳外科集驗方卷之九’라고 되어있다. 이렇듯 『外科集驗方』과 『秘傳外科方』은 서로 구분이 애매한 상태로 여러 가지 판본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醫方類聚』178권, 「疔瘡門1」에서도 『外科集驗方』을 인용한 소제목에 ‘增添別本’이라는 용어가 붙어있다는 것은 증보되고 추가된 내용이 있는 본이 따로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게다가 중국 교정본에서는 『外科集驗方』이 元代에 楊清叟가 지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李時珍의 『本草綱目』 引用古今醫家書目을 보면 楊清叟의 『秘傳外科』, 周良采<sup>26)</sup>의 『外科集驗方』이라고 되어있어 저자에 있어서도 부정확한 면을 보이고 있다<sup>27)</sup>. 이로 미루어 보아 疔瘡治法の 경우 『外科集驗方』, 『理傷續斷方』, 『秘傳外科方』에 모두 포함되어있지만 趙宜眞이 책을 찬집하면서 동일내용을 누락시켰거나 판본이 다양하고 내용이 정확치 않아 임의로 구분하여 책을 구성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치루에 관한 내용의 경우는 『外科集驗方』과는 연관이 없어보이며, 『理傷續斷方』과 『秘傳外科方』에 모두 포함된 내용을 위와 같은 이유로 趙宜眞이 『秘傳外科方』에만 귀속시켰다고 생각한다.

형성시기를 살펴보면 『理傷續斷方』의 서문에는 唐代에 작성되었다고 되었다. 이 서문이 唐代의 것이라는 보장도 없지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본문 자체가 그 당시에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내용뿐만 아니라 ‘理傷續斷方’ 혹은 ‘仙授理傷續斷秘方’이라는 제목도 唐代의 것으로 보기 힘들다. 서문에도 책의 제목은 나오지 않았으며 본문 내용 중의 일부가 담겨있는 『永類鈴方』에서도 ‘彭氏口教’ 혹은 ‘彭氏方’이라는 명칭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理傷續斷方’이라는 제목이 등장하는 판본도 현재로서는 明代의 홍무본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본문 내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理傷續斷方』에 수록된 처방 중 同名異方일 가능성이 적은 黑龍散, 風流散, 黑丸子를 四庫全書에서 검색한 결과 『薛氏醫案』<sup>28)</sup>, 『景岳全書』<sup>29)</sup> 등 明代의 서에서만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로 보아 『理傷續斷方』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위

20) 물론 『急救仙方』卷六에서 卷十一 끝까지 어디에도 『理傷續斷方』이 끝났다는 표현도 없다.

21) 참고로 『急救仙方』十一卷은 서문을 기준으로 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5권의 내용은 婦人에 관한 내용으로 1권 앞에 서문이 있고, 6~9권은 각각 ‘醫治整理補接次第口訣’, ‘又治傷損方論’, ‘疔瘡治法’, ‘秘傳五痔品’으로 6권 앞에 『理傷續斷方』서문이 있으며, 10~11권은 각각 ‘上清紫庭迫癆仙方論法’, ‘上清紫庭迫癆仙方品法’으로 10권 앞에 서문이 있다.

22) 『理傷續斷方』 관련 서적들의 『醫方類聚』계재순서는 다음과 같다.  
「疔瘡門」: 外科集驗方-理傷續斷方-急救仙方-秘傳外科方  
「痔漏門」: 理傷續斷方-急救仙方-秘傳外科方  
「折傷門」: 得效方-永類鈴方-理傷續斷方

23) 明楊清叟 撰, 韋以宗 點校, 仙傳外科集驗方, 人民衛生出版社, 1991.

24) 다만 중국 교정본에 「治諸疔瘡方法」이라는 소제목으로 疔瘡에 대한 의론과 처방이 서술되어있는데, 의론부분은 『醫方類聚』178권, 「疔瘡門1」의 『外科集驗方』에서 「治諸疔瘡

經驗方法」이라는 소제목으로 인용되고 있고, 처방부분은 『醫方類聚』179권, 「疔瘡門2」의 『外科集驗方』에서 「增添別本治諸疔瘡經驗方法」으로 인용되어 있다.

25) 『秘傳外科方』의 이명으로 생각된다.

26) 周良采는 明代醫家로 『醫方選要』十卷을 지었다. (欽定四庫全書總目, 醫家類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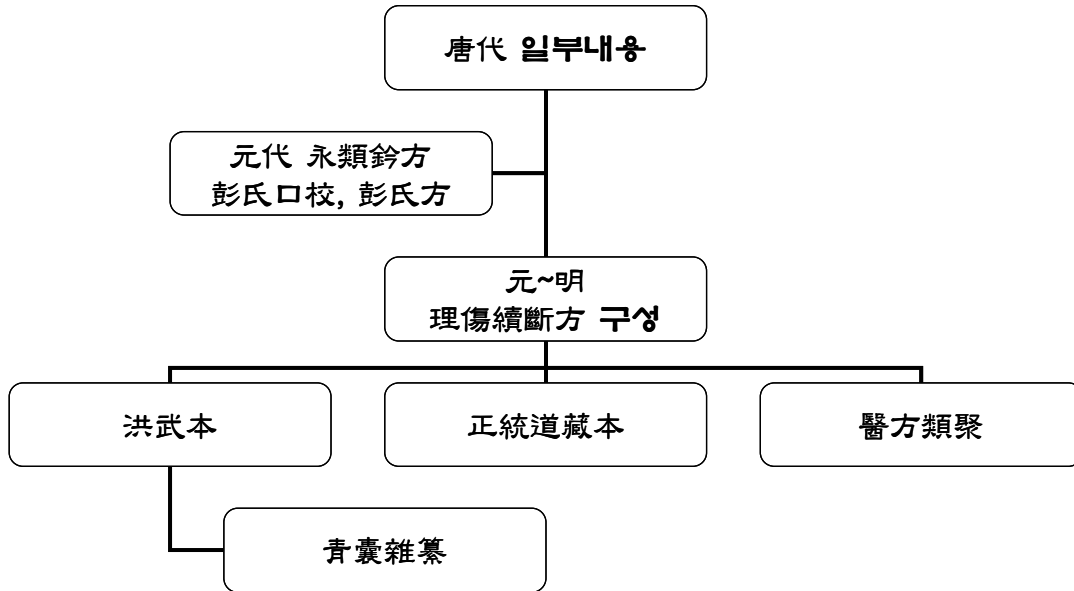
27) 欽定四庫全書, 子部, 本草綱目, 卷一上, 序例上, 引用古今醫家書目.

28) 欽定四庫全書, 子部, 醫家類, 薛氏醫案 卷12: 黑龍散, 風流散, 黑丸子 포함

29) 欽定四庫全書, 子部, 醫家類, 景岳全書 卷64: 黑丸子 포함

에 서술한 明代의 판본들이 나오고 난 이후이다. 사실 절상에 관한 전문서적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책이 이전부터 실존했다면 『太平聖惠方』이나 『和劑局方』 등과 같은 대형종합의서에서 채용하지 않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형성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표4]와 같다.

[표4] 理傷續斷方의 형성



결론적으로 『理傷續斷方』은 元대에 ‘彭氏口教’ 혹은 ‘彭氏方’으로 불리며 떠돌다가 『永類鈴方』에서 이를 채집하여 수록했고, 그 후 元代와 明代 사이에 누군가가 내용을 모아서 제목과 서문을 붙였다고 볼 수 있다. 이 판본에는 절상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치루 및 정창에 관한 내용도 있었지만 趙宜眞은 홍무본을 구성하면서 치루 및 정창의 내용은 『外科集驗方』이나 『秘傳外科方』에도 있었기 때문에 『理傷續斷方』에서는 삭제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正統道藏본은 홍무본과 연대 차이가 최대 50년 정도 밖에 안 되며, 『急救仙方』 내에 포함된 형태이기 때문에 홍무본을 참고해서 구성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正統道藏본은 치루, 정창에 관한 내용을 『理傷續斷方』 아래 들 수 있었다. 『醫方類聚』도 독자적으로 당시에 우수한 판본들을 수집하면서 철저한 비교와 대조를 거쳤기 때문에 서로 얽혀있는 『外科集驗方』, 『急救仙方』, 『理傷續斷方』, 『秘傳外科方』을 구분하여 인용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理傷續斷方』의 가장 온전한 모습을 보존하게 되었다.

### Ⅲ.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理傷續斷方』의 현존 판본에는 明代 홍무본·正統道藏본·청녕잡찬본이 있으며, 관련서적으로는 元代『永類鈴方』, 朝鮮初『醫方類聚』가 있다. 『永類鈴方』에는 ‘彭氏口教’ 혹은 ‘彭氏方’으로 인용되어있고, 누락된 내용이 다수 있으며 서문이 없다. 홍무본은 趙宜眞이 수집한 방식 중 『仙傳外科集驗方』, 『秘傳外科方』 2권과 『理傷續斷方』을 인쇄가 謝安達이 함께 엮어서 출판한 것이다. 『正統道藏』본에는 『急救仙方』 11권 중 6~7권에 “仙授理傷續斷秘方”이라는 제목으로 실려있다. 『醫方類聚』의 경우 「折傷門」, 「疔瘡門」, 「痔漏門」, 「婦人門」에 실려있다. 「疔瘡門」, 「痔漏門」의 내용은 현재 출간된 중국 교점본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正統道藏본 『急救仙方』과 홍무본 『秘傳外科方』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2. 『醫方類聚折傷門』에 인용된 『理傷續斷方』에서 중

국교점본과 비교해 빠진 부분은 누락된 것이 아니라 “諸方, 以世代先後, 分門編入, 不分細目”이라는 『醫方類聚』의 인용원칙에 따라 부인과 내용은 「婦人門」에 인용하고 같은 내용이면 선대의서인 『永類鈴方』이나 『得效方』에 실은 것이다. 「痔漏門」에서 『理傷續斷方』은 「李防禦五痔方」이라는 소제목으로 인용되는데, 『秘傳外科方』의 「李防禦五痔方」과 『急救仙方』 9권 · 「秘傳五痔品」과 동일한 내용이다. 「疔瘡門」에서 『理傷續斷方』은 처방으로만 구성되어있으며, 이 내용은 『急救仙方』 8권 · 「疔瘡治法」, 「李世安治疔法」과 『秘傳外科方』의 「疔瘡治法」, 「李世安治疔法」의 처방부분에 해당한다. 의론부분은 『醫方類聚』 178권, 「疔瘡門1」의 『外科集驗方』 인용부분에 「疔瘡治法」이라는 소제목으로 기재되어있다.

3. 『理傷續斷方』의 내용은 元대에 ‘彭氏口教’ 혹은 ‘彭氏方’으로 떠돌다가 『永類鈴方』에서 이를 채집하여 수록하고, 그 후 元代와 明代 사이에 누군가가 내용을 모아서 제목과 서문을 붙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판본에는 질상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치루 및 정창에 관한 내용도 있었지만 趙宜眞이 홍무본을 구성하면서 치루 및 정창의 내용은 『外科集驗方』, 『秘傳外科方』에도 있었기 때문에 『理傷續斷方』에서는 삭제하고, 『秘傳外科方』에만 실었다. 반면에 『醫方類聚』와 『正統道藏』은 홍무본과 달리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당시 판본을 참고하여 치루 및 정창에 관한 내용을 『理傷續斷方』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理傷續斷方』의 내용 자체는 唐代부터 존재했을 수 있지만 제목과 서문이 제대로 붙고 본문이 구성된 연대는 元代와 明代사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당시에는 치루 및 정창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理傷續斷方의 전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서적은 『正統道藏』과 『醫方類聚』이며 이를 저본으로 본문을 구성해야 온전한 『理傷續斷方』을 완성할 수 있다.

#### IV. 참고문헌

1. 金禮蒙 等撰·浙江省中醫研究所湖州中醫院 校點, 『校正 醫方類聚』8~10, 醫聖堂, 1993.
2. 『道藏』, 文物出版社 上海書店 天津古籍出版社, 1988.
3. 『欽定四庫全書』, 子部, 醫家類
4. 『中國醫學大成續集十四』, 上海科學技術 出版社, 2000.
5. 唐·藺道人 著·宋書功 點校, 『仙授理傷續斷秘方』,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02.
6. 唐·藺道人 撰·韋以宗 點校, 『理傷續斷方點校』, 廣西民族出版社, 1989.
7. 唐·藺道人 著·胡曉峰 整理, 『仙授理傷續斷秘方』, 人民衛生出版社, 2006.
8. 明·趙宜眞 輯·韋以宗 點校, 『秘傳外科方』, 人民衛生出版社, 1991.
9. 元·楊清叟 撰·韋以宗 點校, 『仙傳外科集驗方』, 人民衛生出版社, 1991.
10.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11. 김기욱 외, 『강좌중국의학사』, 대성의학사, 2006.
12.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jisk.kiom.re.kr



急救仙方卷之八

疔瘡治法

夫疔瘡之初生也。人多不覺。生於頭面手足。肚脇腰腿間。亦無定處。一。二日必作。寒熱如癰。頭疼體痛不可忍。其痛稍異於尋常之證。須去偏身尋認其瘡。如有小瘡。與常患之瘡稍異。即是疔也。此瘡得患各有所因。而其形狀亦各不同。猪疔形圓而小。瘡口內有油。羊疔形長色白。牛疔形圓而小。瘡口內無油。狗疔形長或帶尖

急救仙方卷八

二二三

八

理傷續斷方

醫治整理補接次第口訣

一煎水洗。二相度損處。三拔伸。四或用力收入骨。五捺正。六用黑龍散通。七用風流散填瘡。八夾縛。九服藥。十再洗。十一再用黑龍散通。十二或再用風流散填瘡口。十三再夾縛。十四仍用前服藥治之。

凡腦骨傷碎。輕輕用手搏令平正。若皮不破。用黑龍散敷貼。若破。用風流散填瘡口。絹片包之。不可見風著水。恐成破傷

急救仙方卷六

一七四

急救仙方卷之九

秘傳五痔品

原痔者。貧富男女皆有之。富者酒色財氣。貧者擔輕負重。飢露早行。皆心肝二血。喜則傷心。怒則傷肝。喜怒無常。風血侵於大腸。到殺道無出路。結積成塊。出血生乳。各有形相。婦人因經後傷冷。月事傷風。餘血在心。經血乃流入於大腸。小兒因利後或母腹中受熱也。治方于後。

水澄膏護

急救仙方卷九

二五一

九

急救仙方卷之七

治傷損方論

如傷重者。第一用大承氣湯或小承氣湯。或四物湯。通大小便。去瘀血也。惟婦人別有陰紅湯。通下。第二用黃末藥。溫酒調。不拘時。病在上。食後服。在下。空心服。遍身痛。臨卧時服。第三服白末藥。熱酒調。其法同。黃末藥。婦人產後諸血疾。並皆治之。第四服烏丸。子。第五服紅丸。子。第六服麻丸。子。用溫酒吞下。婦人艾醋湯下。孕婦不可服。

急救仙方卷七

二二一

七